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24 / 2007.8.15

□ 독일, '18년까지 탄광 단계적 폐쇄

- 독일 정부는 8일 석탄 광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오는 '18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탄광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승인했음.
- 내년부터 탄광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탄광과 탄광 근로자에게는 폐쇄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계획임.
- 독일에는 현재 8개의 탄광이 운영 중에 있고 탄광업 종사자는 3만5천 명 정도이며, 지난해 석탄 생산량은 2천100만 톤을 기록하였음.
- 독일의 탄광은 대부분 지하 1,000 m 이하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석탄 생산비가 판매가 보다 높아서 광산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연간 약 25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음.
- 탄광폐쇄에 따른 보상금 규모는 3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연방정부 및 주 정부가 216억 유로를 부담할 계획임.

(Deutsche Welle/AP, 2007.8.8)

NEWS

- 독일, '18년까지 탄광 단계적 폐쇄
- 일본,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개시
- 카자흐스탄, 외국기업의 개발활동 감시 강화
- 이라크와 터키,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문제점 제기
- 프랑스, 전력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
- 독일 E.ON사, 이베리아반도의 풍력발전단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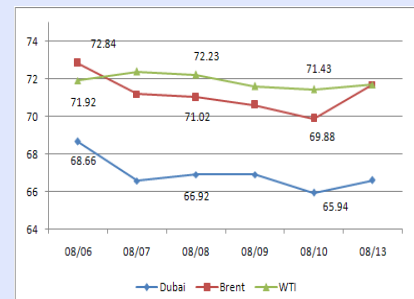
ANALYSIS

- 일본 전력시장 자유화의 진행상황
- 인도 석탄수급 전망
-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에너지외교 동향
- CNG,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 향상

REPORT

-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8월호)

Oil Prices (Spot)



자료 : 한국석유공사



ASIA & AMERICA

□ 일본,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개시

- 지난 2월 양국 간의 장기 원유공급계약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정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개시함.
 - 미쓰이와 마루베니를 통해 약 200만 배럴의 고급 경질유를 구매하였음.
- 미쓰이와 마루베니는 PDVSA와 \$35억에 15년간 원유와 가스를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음.
- 현재 베네수엘라는 시장다변화 전략을 계획 중이며, 일본은 정치적 문제로 복잡한 중동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Reuters, 2007.8.6)

□ 카자흐스탄, 외국기업의 개발활동 감시 강화

- 카자흐스탄 정부는 7월 30일 Kashagan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유전개발이 지연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재협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이 조치는 Kashagan 유전의 개발 지연에 따른 우려에서 나온 것임.
 - ENI 주도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Kashagan 유전은 '08년부터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10년으로 지연되었으며, 개발비용 역시 \$570억에서 \$1,360억으로 증가하였음.
 -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생산물분배계약 중 자국의 몫을 현재의 1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임.
 - ※ Kashagan 유전의 매장량은 90~130억 배럴로 추정되며, ENI(18.52%) 주도로 ExxonMobil(18.52%), Shell(18.52%), Total(18.52%), ConocoPhillips(9.26%), Impex(8.33%), KazMunayGaz (8.33%)이 공동 개발하고 있음.
- 현재 정부의 유전개발 감사는 가장 큰 유전인 Kashagan과 함께 Tengiz



유전, Karachaganak 유전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99년 석유가격이 상승한 이후 시작되었음.

※ 캐나다 소유였던 PetroKazakhstan은 '05년 환경문제 및 독점관행 등을 이유로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5,540만의 벌금을 부과 받고, 결국 CNPC로 자산을 매각(CNPC는 카자흐스탄의 KazMunayGaz에 자산을 재매각)하였음.

- Tengiz 컨소시엄은 9백만 톤의 황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구에 따라 환경기금으로 향후 3년간 \$3억을 투자하기로 함.

(Economist, 2007.8.1)

EUROPE, MIDDLE EAST & AFRICA

□ 이라크와 터키,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 양국은 발전소 건설과 석유, 가스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

- 이라크는 터키 석유공사에 이라크의 석유, 가스분야에 진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양국은 Kirkuk-Ceyhan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재수출을 계획하고 있음.

- 터키는 이라크와 자국을 통해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공동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양국 간의 가스수송 파이프라인 건설협약은 '97년 체결되었으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함.

- 그리고 양국은 발전소 건설과 함께 이라크와 터키간의 송전망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www.arabic1.people.com.cn, 2007.8.8), (Al-Jazeera, 2007.8.8)

□ EU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한 문제점 제기

○ 영국의 Open Europe 연구소는 EU 배출권거래제도(1단계, '05~'07년)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는 데에 실패하였으며, 2단계 ('08~'12년)역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동 연구소는 지난 2일 보고서 발표를 통해 EU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비는 매우 높은 반면에 그 기능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노력하기보다 저개발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데 치중해 실제적인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심지어 환경오염 배출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배출권 할당에 있어 무상 배분의 비율이 경매방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하였음(2단계 배출권거래제에서 경매는 1.5%를 차지함).
 -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배출시설(Installations)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기업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높은 운영비에 직면하고 있음.
- 동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탄소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현 시스템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고 있음.

(Platts, 2007.8.9)

□ 프랑스, 전력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

- 프랑스 경제부위원회는, 가정용 소비자들이 전력판매회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EDF의 규제요금을 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함.
 - 에너지시장 전면개방과 함께 현재 프랑스의 가정용 소비자들은 규제요금과 자유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자유요금을 선택할 때 다시 규제요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
 - 산업용 수용가들에 한해 2년 동안 요금제 변경을 허용하였으나, 자유요금이 규제요금보다 약 50%가 인상되어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전력요금 인하를 기대했던 에너지시장 자유화가 오히려 가격급등을 초



래하자 이는 프랑스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며, 과도한 요금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민연합운동(UMP) 의원들의 서명과 함께 제출됨.

- 지난 7월, UMP 상원의원은 '10년 7월 1일까지 전력규제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으나 EU 집행부의 정책과 대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된 바 있음.

(Reuters, 2007.8.4)

□ 독일 E.ON사, 이베리아반도의 풍력발전단지 매입

- E.ON은 덴마크 Dong사의 Energi E2 Renovables Ibericas 풍력발전단지를 7억 2,200만 유로에 매입하기로 함.
 - Energi E2 Renovables Ibericas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260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 이번 매입을 통하여 E.ON은 앞으로 스페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은 물론, 풍력발전부문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E.ON의 Endesa 합병 실패 후, 최근 유럽집행위원회는 E.ON이 Endesa 프랑스와 폴란드, 이탈리아, 터키 지분을 양도받는 것과 Enel의 계열사인 Viesgo의 지분매입을 허용함으로써, E.ON은 스페인에서 약 65만 명의 소비자와 6,400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 E.ON은 향후 4년간 이베리아반도에 풍력 발전소 설비를 확대하여 생산능력을 560MW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활성화를 위해 '10년까지 3억 유로 투자계획과 1,000MW급의 해안 풍력에너지 프로젝트를 계획 중임.

(EFE, 2007.8.7)



1. 일본 전력시장 자유화의 진행상황

□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09년 실시 예정이었던 가정부문의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를 연기할 계획에 따라 전력시장 전면자유화가 지연되고 있는 반면, 외국기업의 전력거래 진출 허가 등으로 전력도매시장은 부분적으로 진전되고 있음.

□ 세부내용

-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논의
 - 지난 6월 전기사업분과회는 가정부문 전력소매시장의 경쟁도입과 그에 따라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99년 이후로, 전력시장은 제조 플랜트, 상업빌딩과 같은 대규모 수용가에게 개방되었음.
 - 반면에, 전력판매량의 30%를 차지하는 가정부문은 계속해서 일본 주요 10대 전력회사(일반전기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전면자유화 시행이 현재로선 그 시기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최근 고유가가 경쟁을 저해할 것이며, 일반 전기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계속 유지되어 소비자의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최근 고유가의 영향
 - 대부분의 신규사업자는 제조업과 정유사, 자가용 중유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산업부문 회사들임.
 - 최근 고유가에 따라 이러한 회사들은 자가용 발전설비들을 폐지하고 전력공급을 일반전기사업자로 전환함.
 - 이는 원자력 및 수력을 갖춘 일반전기사업자들이 고유가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으로, 전환규모는 1,000MW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소매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점유율은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소매회사, 이데미쯔와 GTF는 고유가로 인해 사업을 철회하였음(7월 1일 기준으로 전력회사는 총 21개가 존재).
 - 전력시장 전면자유화의 향방
 - 일본의 전력시장 전면자유화는 향후 수년내에 다시 논의될 것이나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전력시장에 많은 신규사업자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둔 전망이다.
 - 경제산업성은 전기사업분과회의 보고에 따라 '08년 3월 31일 전력시장 전면자유화 시행에 관한 최종결정을 할 계획임.
 - 전기사업분과회는 은행과 자동차제조회사, IT, 대학, 전력 및 가스회사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됨.
 - 전력도매시장의 발전
 - 일본의 전력시장 전면자유화는 지연되는 반면, 전력도매거래는 부분적으로 진전을 보임.
 - 일본전력도매거래소(JEPX)는 3월 미국 메릴린치사에 거래허가증을 부여하여 일본전력거래시장 진출을 허용함.
 - JEPX는 다른 미국 및 유럽 금융기업의 전력시장 진입을 추진할 계획임.
- ※ 일본의 전력도매거래소를 통한 전력판매는 10% 미만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전기사업자들의 영향력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시사점

- 일본의 전력시장 전면자유화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 고유가와 기존 전력회사의 영향력으로 분석되며, 향후 일본경제산업성의 제도개편에 따른 결정사항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Argus Asia Gas & Power, 2007.7)



2. 인도 석탄수급 전망

□ 개요

- '06년 11월에 인도 석탄성은 'Coal & Lignite for Formulation of 11th 5 Year Plan('07~'12)'를 발표함.
- '04년도 인도의 1차에너지공급량은 5억7,300만 TOE이며, 그 가운데 석탄이 1억9,550만 TOE로 34.1%를 차지하고 있음(석유 1억2,730만 TOE, 22.2%).

□ 세부내용

- '06년 8월에 발표한 Integrated Energy Policy에서 인도가 제시한 '31년까지 8%의 GDP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차에너지공급을 '03년도의 3~4배, 발전용량을 5~6배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경제성장률을 8~10%로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 인도의 석탄수입은 계속 증대될 것이며, 에너지수요에서 석탄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임.
- 아시아의 석탄생산량은 28억 2,700만 톤으로 '05년도 세계 석탄 총생산량의 56.9%임.
- 아시아의 석탄소비량은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대만, 인도, 중국 등 5개국이 수입하는 석탄은 3억7,830만 톤으로 아시아지역 석탄 수입량 4억1,820만 톤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05년도 인도의 석탄수입량은 3,860만 톤으로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 1,606만 톤으로 41.6%, 호주 1,437만 톤으로 37.2%를 차지하고 있음.
- IEA는 세계 석탄소비를 '04년의 55억 5,800만 톤에서 '30년에는 88억 5,8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1차에너지소비 구성비에서 25%를 차지함.
- '04~'30년 사이에 증가하는 석탄소비량 가운데 전체의 85%를 아시아 국가가 소비하게 될 것임(중국 60%, 인도 18%).



- 인도는 발전부문 석탄수요 증가분이 자국의 석탄생산 증가량을 초과하여 석탄수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04년 이후에 기존탄광 확장과 신규 탄광개발, 각국의 수송인프라 정비 등으로 석탄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의 석탄수입량 증대가 석탄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대규모 발전프로젝트가 인도 석탄 소비증가의 주요 요인이며, 이를 위해 인도는 해외석탄프로젝트 지분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시사점

- 인도의 석탄수입 증가에 따라 세계 석탄수급 및 가격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석탄 수입원의 다양화와 해외석탄 프로젝트 개발확대 등의 추진이 요구됨.

(IEEJ, 2007.7)

3.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에너지외교 동향

□ 개요

-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중남미 국가들을 방문하며 자국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외교를 펼치고 있음.

□ 세부내용

-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10억 상당의 아르헨티나 국채매입 및 석유·천연가스 수출확대, LNG 플랜트 공동건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에너지부족으로 인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탈출구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
- 베네수엘라는 양국간에 체결된 에너지안보 협정을 통해 2150년까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 향후 5년 내 오리노코 유전개발 사업참여와 가스관 시스템 확장을 통한 공급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다양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한 통합 에너지회사인 Petrosuramerica와 베네수엘라산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될 가스발전소 설립에 합의함.
-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에콰도르 유전개발사업 참여와 양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정제를 위한 공동 정제시설 설립, 에너지안보 협정에 합의함.
- 우루과이에는 향후 100년간 에너지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며, La Teja 정유소 공동 확장에 합의함.
- La Teja 정유소는 현재 5만 b/d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 후 6만 b/d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함.
-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멕시코를 방문하여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및 개발 기술협력을 강화하며 심해 유전개발 공동참여 방안 강구 및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연료에 관하여 논의함.
- 브라질은 Petrobras가 멕시코 걸프만에서 유전을 발견한 경험을 바탕으로 걸프만 심해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는 멕시코 Pemex에게 기술력을 전수하겠다고 함.
- 이 밖에도 룰라 대통령은 에탄올이 미래연료로써 지구온난화 해결과 고용창출, 후진국 빈곤 및 기아퇴치를 위한 방안이라며 바이오연료의 보급확대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함.
- 이밖에도, 브라질은 칠레, 파라과이와 함께 바이오연료 개발 및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아르헨티나와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잇는 가스관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시사점

- 중남미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공급, 브라질을 통한 바이오연료 개발을 중심으로 에너지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두 국가의 중남미국가에 대한 영향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Reuters, 2007.8.6)



4. CNG,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 향상

□ 개요

- 종래 CNG(압축천연가스)는 LNG(액화천연가스)에 비하여 부피가 커서 수송비용이 많이 들어 보급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기술개발로 경제성이 증대된 가운데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 세부내용

- LNG 공급은 대규모 천연가스가 매장된 가스전 개발과 수요처가 확보된 가운데 장기 수급계획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기존 가스매장량의 대부분을 LNG로 개발하기에는 규모가 작음.
 - 소비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는 소규모 가스전의 경우는 경제성 부재로 소외되어 왔음.
- 하지만 최근 CNG 부문의 기술진보로 경제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TransCNG International사는 CNG를 연료용으로 대량 공급하는 첫 번째 회사로, 선박에 의한 대량수송을 위한 시험설비를 캐나다 Winnipeg에 설치함.
 - EnerSea사는 CNG로의 개발을 위한 가스매장량 규모는 2 Tcf 이하, 50 ~ 100 Bcf 까지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일일 생산량은 20 ~ 700 MMcf 규모, 수송거리는 100~5,000 km가 경제성이 있다고 피력함.
 - ※ 천연가스 1 Tcf는 약 2,250만 톤, 1 Bcf는 약 2만2500 톤. 1 MMcf는 약 22.5 톤, CNG 압력은 3천 psi.
 - TransOcean사는 CNG는 LNG에 비하여 천연가스의 압축비용이 1/10에 지나지 않고, LNG가 액화, 수송에 35%의 손실이 있는 반면, CNG는 동일 수송거리에 손실이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피력함.
 - LNG 대비 가스처리 및 수송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이 적고, 투자회수 기간도 짧아 사업진입이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박이



용의 경우, 1회 선적량이 LNG에 비하여 적어, 장거리 수송인 경우는 CNG가 경제성이 떨어짐.

- CNG로의 수송 경제성은 공급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최대 5,000 km가 한계임.

LNG와 CNG의 가스처리 및 수송부문 설비 투자비용(\$백만)

구 분	LNG		CNG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액화/저장/제티	1,500	3,000	0	100
선적부이	0	0	15	50
선적	175	440	200	900
하역제티/저장/가스화	325	500	0	100
하역부이	0	0	15	50
총 계	2,000	3,940	230	1,200

- 최근 Facts Global Energy Group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래스카에서 하와이전력회사에 CNG를 공급 시, 기존의 석유에너지비용 대비 1 MMbtu당 \$1~2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시험단계로 본격적인 CNG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보급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CNG 업계는 전망하고 있음.

□ 시사점

- CNG의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LNG로의 개발이 어려운 동남아시아의 중·소규모 가스전을 현지회사와 공동개발하여 CNG로 국내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음.

(Energy Economist, 2007.7.)



1.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8월호)

□ 개요

-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는 국내외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를 8월 7일 발표하였음.

□ 세부내용

- 세계 석유수급
 - '07년 상반기 석유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70만 b/d 증가였으나, 하반기에는 180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미국, 중동의 경기 호조로 하반기 석유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일본 가리와 원자력발전소 문제로 일본의 석유 소비는 '08년 중반까지 15만 b/d 증가할 것임.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b/d)

구분	2006	2007	2008
수요(A)	84.4	85.7	87.1
OPEC 공급(B)*	35.3	34.9	36.2
비OPEC 공급(C)	49.2	49.9	51
공급(B+C)	84.5	84.9	87.2
재고변동**	+0.1	-0.9	+0.1

* : OPEC 공급은 앙골라 포함, OPEC 12개국 공급량

** :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OPEC의 3/4분기 원유생산량은 3,050만 b/d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달 EIA 예측치에 비해 30만 b/d 낮아진 수치임.
- OPEC의 낮은 수준의 잉여생산능력으로 인해 세계 석유시장은 하반기에도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OPEC의 2/4분기 잉여생산능력은 240만 b/d에 이룸).
- EIA는 4/4분기 OPEC의 원유생산은 50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계 원유 비축량은 5년만에 최저 수준에 이를 전망임.
- 비OPEC 국가의 석유생산은 '07년에 약 69만 b/d, '08년 110만 b/d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지난 EIA 전망치 보다 각각 9만, 10만 b/d가 증가한 수치임.

- 구 소련, 미국, 브라질에서의 증산으로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의 감소분을 상쇄하게 될 전망이다.

○ 국제유가

- 지난 2개월간 상승세였던 국제 유가는 8월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07년과 '08년 국제 평균유가는(WTI 기준) 각각 \$67.61/bbl과 \$71.25/bbl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석유수급

- '07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090만 b/d, '08년에는 1% 증가하여 2,110만 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여름 휘발유 소비는 작년보다 1% 증가하여 950만 b/d를 기록할 것임.
- 미국의 '07년 석유생산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520만 b/d가 될 전망이다.
- Atlantis 심해 및 Thunderhorse 플랫폼에서 원유 생산이 개시되는 '08년에는 원유 생산량이 540만 b/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천연가스

- '07년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4% 증가하여 약 6,425억 m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08년에는 1.3%로 증가하여 약 6,507억 m³을 기록할 전망이다.
- 육상가스전의 생산이 증가하여 멕시코 만에서의 천연가스 생산 감소분을 상쇄할 전망이다.
- 미국의 총 천연가스 생산량은 '07년에 6,363억 m³, '08년에 6,453억 m³로 각각 0.8%, 1.5% 증가할 전망이다.
- '07년 상반기 LNG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3%증가하여 130억 m³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유럽 및 아시아의 LNG 수요증가로 감소할 전망에 따라 '07년 총 LNG 수입량은 240.7억 m³에 이를 전망이다.
- '07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3/4분기 \$6.03/MMBtu, 4/4분기



\$7.20/MMBtu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EIA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9/MMBtu, \$0.75/MMBtu 하락한 것임.

- '07년 및 '08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각각 \$6.74/MMBtu, \$7.29/MMBtu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전력

- '07년 총 전력소비량은 작년대비 1.9% 증가하여 3,893TWh, '08년에 1.4%로 상승하여 3,948TWh를 기록할 전망이다.
- 가정용 전력 가격은 '07년에 2.6%상승하여 ¢10.67/kWh, '08년에는 1.4% 상승한 ¢10.98/kWh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석탄

- '07년 석탄수요는 0.8% 증가한 11.23억 톤, '08년에는 0.8% 증가한 11.32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 전력부문 석탄소비는 '07년에 1% 증가하여 약 10.36억 톤, '08년에는 '07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10.41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07년 석탄생산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약 11.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전체 석탄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부지역 석탄생산은 '07년과 '08년에 각각 2.3%와 0.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EIA 8월 전망에서는 최근 고유가와 OPEC 증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전월보다 높은 가격과 낮은 OPEC 생산량을 전망함.
 - 이번 8월 보고서는 '07년 평균 WTI 예상가격을 7월 예측치인 \$65.56 보다 \$2.04 증가한 \$67.61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08년 예상가격은 7월 \$66.92로 전망하였으나 8월 보고서는 \$71.25으로 예측함.
 - 7월 보고서에는 '07년 OPEC의 생산량을 3,520만 b/d로 전망한 반면, 8월에는 3,490만 b/d로 전망함.
 - ※ 9월에 개최되는 OPEC 정기총회에서 증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